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9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제주농기원 육성 감귤 신품종 수출 가능성 확인-5면(24.3.29.)	과수연구과	원예산업신문
○	국내 육성 만감류 신품종 보급 ‘속도’ -10면(24.4.1.)	과수연구과	농민신문
○	감귤 신품종 3총사 내년부터 농가 보급 -3면(24.4.1.)	과수연구과	농업인신문
○	제주 키위, 수출전문농가 육성 나선다 -10면(24.4.1.)	과수연구과	한국농정
○	‘키위’ 인공수분 전 꽃가루 발아율 검사 필수-4면(24.4.1.)	기술지원조정과	농업인신문
○	애월읍4-H본부, 왕벚꽃축제 부스 운영 통해 4-H홍보-2면(24.4.1.)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신문
○	제주시 제주4-H본부, 힐링산행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7면(24.4.1.)	제주농업기술센터	한국4-H신문
○	제주시연합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6면(24.4.1.)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업인신문
○	서귀포시연합회, “영농부산물 안전하게 처리해요-6면” (24.4.1.)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신문
○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정 20명 선착순 모집-7면(24.4.3.)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서귀포신문
○	국내 육성 ‘양절’ 메밀 채종단지 운영-4면	농산물원종장	제민일보
○	국내 메밀 씨앗 사용하고 싶은데… 가격 차이 ‘발목’ -6면	농산물원종장	제주매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기고] 영농철 농작업 안전 재해 주의보 -14면(송상철)	서부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고품질 고당도 감귤 생산 위한 토양피복 지원 총력-7면	-	제주매일

(원예산업신문: 2024년 3월 29일)

○ 제주농기원 육성 감귤 신품종 수출 가능성 확인-5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1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신품종 만감류 싱가포르 수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제주농기원 육성 감귤 신품종 수출 가능성 확인 농진청과 '신품종 만감류 수출 결과보고회' 공동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지난 21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신품종 만감류 싱가포르 수출 결과보고회'에서 신품종 감귤 '달코미'와 '우리향'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달코미'와 '우리향'은 지난해 농촌진흥청을 통해 싱가포르에 시범 수출됐다.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제품 사진과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선주문하면 제주에서 싱가포르 현지 소비자에게 이를 만에 배송됐다.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두 품종 모두 모양뿐만 아니라 맛과 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향'은 당도가 높고 향이 좋다는 평

가가 많았고, '달코미'는 풍부한 과즙과 적당한 산함량으로 감미비가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 싱가포르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제품의 크기 및 껍질 벗기기 용이성, 제품 수출 시 손상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포장방법 보완이 요구됐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싱가포르 소비자들이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높은 신뢰와 선호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해 꾸준히 수출할 수 있다면 감귤 신품종의 수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조형익 cho3075@3.29.net

원예산업신문 5

(농민신문: 2024년 4월 01일)

○ 국내 육성 만감류 신품종 보급 ‘속도’ -10면

국내 육성 만감류 신품종 보급 ‘속도’

제주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완료 종자업체, 내년부터 묘목 판매

제주도(도지사 오영훈)가 국내에서 육성한 만감류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데 속도를 낸다.

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만감류 신품종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완료했다고 3월25일 밝혔다.

통상실시는 여러 종자업체에 품종취급 권리를 주는 것으로, 한 업체와 독점 계약하는 전용실시의 상대 개념이다. 도농기원은 이를 통해 신품종 보급이 더 빠르게 이뤄져 국내 품종 중심의 감귤산업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계약한 종자업체는 ‘맛나봉’ 20곳, ‘레드스타’ 19곳, ‘설향’ 17곳 등 모두 56곳이다. 이들은 앞으로 5년간 해당 종자를 지역농가에 보급하게 된다. 예상 보급량은 모두 15만 그루다.

업체들은 올해 묘목을 길러 내년부터 1년생 나무를 농가에 본격 판매할 계획이다. 공급된 묘목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유출을 엄격히 금지한다.

‘맛나봉’은 12월 중순 수확할 수 있다. 평균 당도 13.6브릭스(Brix), 산함량 1%로 당산 비율이 적절하다. 노지 재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12월 중순 수확하는 ‘레드스타’는 당도가 12브릭스로 탁월하고 붉은빛 과피가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설향’은 1월 생산되고, 당도가 15.1브릭스로 세 품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기원은 앞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재배함으로써 신품종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도농기원은 지난해에도 ‘우리향’ ‘달코미’ 등 국내 육성 만감류 품종에 관한 통상실시 계약을 진행한 바 있다. 올해 1년생 묘목이 공급되고 있다.

제주=김 4.1./지사
daebak@ 농민신문 10

(농업인신문: 2024년 4월 01일)

○ 감귤 신품종 3총사 내년부터 농가 보급-3면

감귤 신품종 3총사 내년부터 농가 보급

상품성 우수한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제주농기원,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직무발명품종 감귤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의 도내 신속한 보급을 위해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을 둔 종자 업체를 대상으로 5년간의 통상실시권을 이전해 ‘맛나봉’ 5만 6,500주(20개 업체), ‘레드스타’ 5만 4,500주(19개 업체), ‘설향’ 3만 9,300주(17개 업체) 등 총 89ha에 식재 가능한 15만 300주가 도내 한정 보급(도외 유출 엄격 금지, DNA 분석을 통해 품종 판별 가능)될 예정이다.

올해 종자 업체에서 묘목을 생산하고 내년부터는 1년생 묘목이 농가에 보급된다. 제주농기원은 이번 통상실시를 통해 신품종 감귤의 신속한 농가 보급과 상품성이 우수한 국산 품종의 점유율 확대에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한 3개 품종은 지난 2011년 황금향(모본)과 레드향(부본)을 교배해 육성했다.

12월 중순에 수확하는 ‘맛나봉’은 당도 13.6브릭스, 산함량 1.06%, 과중 237g으로 노지재배가 가능할 전망이다. ‘레드스타’도 12월 중순 수확하는 품종이며, 당도 12.0브릭스, 산함량 1.00%, 과중 217g으로 오렌지 색을 띤 빨간색의 매끈한 과피가 특징이다. ‘설향’은 당도 15.1브릭스, 산함량 0.90%, 과중 212g으로 제주농기원에서 개발한 다른 품종과 달리 수확기가 1월이다.

4.1.
박정원 wan 농업인신문 3



(한국농정: 2024년 4월 01일)

○ 제주 키위, 수출전문농가 육성 나선다-10면

제주 키위, 수출전문농가 육성 나선다

제주농업기술원·한국키위수출, 수출확대 위한 공동연구 착수

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공급 안정화 도모와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 제주 농정당국이 제주산 키위 수출 확대사업을 추진한다.

제주산 키위는 국제 우수 농산물 관리기준(GLOBAL GAP) 획득에 따른 국제 수준의 안전성 및 업계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수출량의 88.9%가 일본에 집중돼 있고 이외 대만 4.5%, 싱가포르 2.7%, 홍콩 2%, 그 외 국가 1.9% 등이 나머지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최근 대만과의 키위 품목 검역협상이 완료되며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 제주농업기술원)은 키위품목 수출통합조직인 농업회사법인 한국키위수출과 제주산 국내 육성 골드키위의 수출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사업의 목표를 △대만 수출 전문 10개 농가 육성 △수출용 키위 재배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지침서 제작·보급 △시장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신규시장 진입 전략 마련으로 설정했다. 한국키위수출은 수출 전문 농가 육성을 통한 시범 수출과 수출지원정책 마련, 제주농업기술원은 안정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컨설팅과 재배시험 연구 성과의 신속한 보급에 중점을 두고 목표달성에 나설 예정이다.

박재홍 아열대과수연구팀장은 "체계적인 농가 관리 및 안정적 재배기술 보급으로 제주산 키위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1. 박재홍 아열대과수연구팀장은 "체계적인 농가 관리 및 안정적 재배기술 보급으로 제주산 키위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정 10

(농업인신문: 2024년 4월 01일)

○ '키위' 인공수분 전 꽃가루 발아율 검사 필수-4면

'키위' 인공수분 전 꽃가루 발아율 검사 필수

꽃가루 활력도 따라 수분율 큰 차이...품질에도 영향
제주농기원, 3~6월 운영하는 꽃가루은행 이용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키위 인공수분 시 꽃가루 발아율 검사를 통해 활력도를 확인하고, 건전한 수꽃가루로 수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키위는 암꽃과 수꽃의 개화 시기가 달라 인공수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전년도에 채취한 수꽃가루를 냉동보관하거나 수입산 수꽃가루를 구입해 사용한다.

인공수분 시 수꽃가루의 활력도에 따라 수분율에 큰 차이가 있고 향후 과실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꽃가루 발아율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제주농기원은 고품질 키위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키위 꽃가루은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꽃가루은행은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꽃가루 발아율(활력도) 검사와 △자가 채취 꽃가루 조제를 무료로 지원해 인공수분용 꽃가루의 안정적인 확보를 돕는다. 꽃가루 발아율 검사 결과에 따라 안정적인 작과를 위한 적정 희석배율을 안내하고, 꽃가루를 자가 채취하는 농업인에게 꽃밥(약) 채취부터 제조까지 필요한 모든 장비와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꽃가루은행 이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제주농업기술센터(760-7762) △서귀포농업기술센터(760-7843) △동부농업기술센터(760-7642) △서부농업기술센터(760-7943)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제주농기원 현장철 기술지원팀장은 꽃가루은행 운영을 안내하며 "키위 인공수분 전 반드시 꽃가루 발아율을 확인하고, 당일 수분할 정도만 증량제와 혼합한 후 개화일로부터 2~3일 이내 맑은 날을 골라 오전 4.1. 인공수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인신문 4

(한국4-H신문: 2024년 4월 01일)

○ 애월읍4-H본부, 왕벚꽃축제 부스 운영 통해 4-H홍보-2면



(한국4-H신문: 2024년 4월 01일)

○ 제주시 제주4-H본부, 힐링산행 및 환경정화활동 전개-7면



(농업인신문: 2024년 4월 01일)

○ 제주시연합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6면

제주시연합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회장 이석근)는 한국농촌지도자서귀포연합회(회장 김영순)와 함께 지난달 19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날 양 단체는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갖고 농촌지도자 18명이 6개조로 나뉘어 도내 134개 농가(45ha)에 대한 파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합회와 도 농업기술원은 이 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파쇄한 가지를 토양에 환원해 토양 비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근 회장은 “영농부산물을 수거, 파쇄, 소각금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을 실천하겠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 4.1. 농업인신문 6

(농업인신문: 2024년 4월 01일)

○ 서귀포시연합회, “영농부산물 안전하게 처리해요-6면”

서귀포시연합회, “영농부산물 안전하게 처리해요”



한국농촌지도자서귀포시연합회(회장 김영순)는 지난달 22일 서귀포시 신흥동 감귤원에서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작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연합회는 감귤 전정가지 파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쇄 시범과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근절 결의 대회 후 읍면지회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다짐했다.

김영순 회장은 “영농 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산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소각 대신 파쇄를 통해 순환 농업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4.1. [농업인신문 6]

(서귀포신문: 2024년 4월 03일)

○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정 20명 선착순 모집-7면

온라인 마케팅 교육과정 20명 선착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 '2024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방 송원고와 큐시트 작성, 쇼호스트 스피치 연습 및 상품페이지 제작, 실전 라이브커머스 진행 등 전 과정이 실 습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 귀포농기센터 정보화교육실 및 라이

브커머스실에서 총 3회 20시간에 걸 쳐 진행된다.

교육 참가 신청은 2일 오전 9시부터 교육인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 집하며 전화(760-7831~4) 또는 방문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5) 신청 가 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농기센터 농 촌자원팀(760-7833)으로 문의하거나 서귀포농기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4.3. 확인
서귀포신문 7

(제민일보: 2024년 4월 09일)

○ 국내 육성 ‘양절’ 메밀 채종단지 운영-4면



양절 메밀 채종단지 전경.

국내 육성 ‘양절’ 메밀 채종단지 운영

단지 5곳 30ha 선정
2기작 가능·수량성 ↑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8일 국내 육성 ‘양절’ 메밀 채종단지 30ha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기존 재래

종 메밀은 가을에만 재배가 가능해 농가에서는 2기작이 가능한 외래용 메밀을 재배해왔다.

반면 국립식량과학원이 육성한 ‘양절’ 메밀은 일반메밀과 다르게 봄·가을 재배가 가능하며 루틴 함량이 높고 수량도 외래종 대비 15% 많다.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모집공고를 통해 채종단지 5곳(지역농협 1곳, 영농조합법인 4곳) 30ha를 선정했으며, 안정적인 종자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포장관리, 생육상황 점검, 종자정선·선별 등 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자검사에 합격한 단체에는 채종단지 운영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제민일보 4면

(제주매일: 2024년 4월 09일)

○ 국내 메밀 씨앗 사용하고 싶은데… 가격 차이 ‘발목’ -6면

국내 메밀 씨앗 사용하고 싶은데…가격 차이 ‘발목’

토종은 가을 재배만…농가 2기작 가능 외래산 선택
가격도 1kg당 2000원 차이…농가원 채종 단지 운영

제주도가 국내 최대 메밀 생산단지 명성을 찾기 위해 2기작이 가능한 국내 육성 씨앗 보급 확대를 위한 채종단지를 운영, 농가 보급을 추진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국산 메밀 품종 점유율과 도내 메밀 자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국내 육성 ‘양절’ 메밀 채종단지 30ha를 운영한다. 기존 토종 메밀은 가을에만 재배할 수 있어 농가에서는 2기작이 가능한 외래용 메밀을 재배해 왔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2기작이 가능한 국내 육성 ‘양절’ 품종을 선별해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채종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외래용 메밀 종자 가격은 보통 1kg에 4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양절 씨앗은 6000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만 ‘양절’ 메밀은 국립식량과학원이 육성한 품종으로 일반메밀과 다르게 봄·가을 재배가 가능하고, 루틴 함량이 높으며 외래종에 비해 수량이 15% 많다는 장점이 있다. 농가에서는 국내 육성 메밀을 사용하고 싶어도 종자 가격 때문에 대부분 외래산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3월 모집공고를 통해 채종단지 5개소(지역농협 1, 영농조합법인 4) 30ha를 선정했으며 안정적



양절 메밀 씨앗.

인 종자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포장관리, 생육상황 점검, 종자정선·선별 등 시기별 현장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채종단지에서 생산된 보급종은 종자검사를 실시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종자검사에 합격한 단체에게는 채종단지 운영에 따른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매일 6면 최영근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09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4-13호(2024.4.8.)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보급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만감류

- 봄순의 균일한 발아 및 생육 촉진을 위해 매일 10a당 5mm 관수
- 발아기~백화기 온도관리: 천창 낮에 개방하고 야간에 닫음. 측창은 항상 닫음
- 기계유유제 이용 응애 방제

■ 초당옥수수

- 2월 하순 정식한 터널재배 포장은 생육상황에 따라 앞꺼내기 작업 시작

■ 양파

- 조생종: 수확 시작되었으나 일조 부족에 따른 비대 지연으로 수확 지연
- 중·만생종: 노균병, 잎마름병 등 방제. 총채벌레, 나방 등 예찰 방제
- 잣빛곰팡이병, 무름병, 쌍구 등 비상품 비율 평년대비 높음

■ 마늘

- 녹병, 잎마름병, 잎집썩음병 등 방제
- 대정지역 4월 4일부터 마늘종 수매 시작

※ 키위 꽃가루 발아율 검사 후 수분하세요

- 운영기간: 3~6월
- 지원내용: 꽃가루 발아율 검사, 꽃가루 자가제조
- 문의: 제주 760-7762, 서귀포 760-7843, 동부 760-7642, 서부 760-7943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4.9.
제주매일 4

(한라일보: 2024년 4월 09일)

○ [기고] 영농철 농작업 안전 재해 주의보-14면

영농철 농작업 안전 재해 주의보



송 상 철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화팀장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현장에서는 각종 농작업으로 농업인들이 분주하다. 그에 따라 수반되는 농작업 재해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 농기계 관련 사고가 월등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화하면서 농기계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고, 농업인의 고령화로 신체 기능이나 상황별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데 원인이 있다. 농기계는 농사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자칫 방심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적기 영농에도 차질을 빚게 되니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

요하다.

농기계 안전사고의 유형은 농기계에 압착되거나 농기계 운전 시 전복이나 추락, 도로 운행 중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나 조작 미숙, 교통법규 미준수 등이 있다. 형태별 농업인 안전재해 발생으로는 농작업 중 재해사고, 질병사고, 누적외상성 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을 보면 2017년부터 2021년도 농업기계 관련 연평균 사고 건수는 1196건, 연평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는 각각 86명, 909명으로 유형별로 보면 끼임 38.3%, 전복·전도 25.2%, 교통사고 16.2% 순이다.

농기계를 이용할 때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한다.

4.9. 한라일보 14

(제주매일: 2024년 4월 09일)

○ 고품질 고당도 감귤 생산 위한 토양피복 지원 총력-7면

고품질·고당도 감귤 생산 위한 토양피복 지원 총력

서귀포시, 올해 25억원 투자 236농가 99ha 대상 시행

서귀포시는 고품질·고당도 감귤을 생산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2024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올해 사업비 25억원(보조 15억원, 자부담 10억원)을 투자·유지관리 및 성목이식 사업 참여 농가를 우선순위로 236농가(99ha)를 대

상으로 확정했다.

토양피복 재배는 다공질 필름을 토양에 피복함으로써 나무에 수분공급 조절이 가능, 토양건조에 의해 감귤의 당도가 증가하고 피복자재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으로 과피색 향상 및 착색이 골고루 이뤄져 고품질·고당도 감귤을 생산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농자재와 비료 등 농업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피복자재 구입 단가가 높아 농가 자부담으로 피복자재 시설에 많은 부담이 있어 향후에도 많은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양피복 재배를 통해 감귤 당도가 2.7~3.2브릭스가량 증가하고 고른 착색 효과가 나타나는 등의 이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소비자 입맛에 맞는 감귤을 생산하는데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두성 기자